

# 구절초 동산 재탄생 '기대감'

### 임실군, 치즈테마파크 방문객들에 힐링 경관 제공위해 0.6ha 도시숲 조성

임실군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볼거리와 힐링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숲을 조성했다.

군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약 0.6ha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그동안 임실군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전장대 밑 비탈의 언덕으로 불리왔던 이곳은 원래 초지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늑한 언덕위 새하얀 구절초동산으로 재탄생하여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동산형태의 기존지형을 살려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는 산책로를 조성했다. 산책로를 따라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와 봄에 가장 화려한 연산홍화 동산전체에는 구절초 약 15만여본을 식재했다.

곳곳에는 구절초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벤치와 포토존도 설치했다. 군은 식재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구절초 생장을 돕는 비료시비뿐 아니라 수목생육에 피해를 주는 잡초 제거, 폭염대비 관수 등 식재수종에 대한 관리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 숲 조성에 따라 10월 3일부터



임실군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약 0.6ha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6월까지 개최될 '2019 임실N치즈축제'도 작년보다 한층 더 아름다운 장관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할 전망이다.

맛있는 치즈~CHEESE 웃음꽃 피자~PIZZA'라는 주제로 열릴 2019 임실N치즈축제는 지난 4월 13일 선종하신 임실치즈의 아버지 지정환 신부의 업적을 관광객들과 함께 기리고 기념하는 뜻깊은 만남의 장이 마련될 예

정으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N치즈축제가 열리는 가을철이 되면 임실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하늘과 맞닿은 듯한 운치있는 소나무 사이로 구절초 꽃밭이 펼쳐지는 장관을 선사할 것"이라며 "천만송이 국화와 함께 치즈축제를 더욱 더 빛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춘향골 농특산물시장 개척

### 남원시, 중국 상해국제식품박람회·서울 식품대전 등 참가

남원시는 농산물 및 농식품, 건강식품, 전통식품 등 바이어 상담을 위한 국내외 최대 박람회인 중국 상해국제식품박람회 및 서울 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하는 등 시장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상해국제식품박람회에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2개 부스의 남원전시관을 운영하였으며,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7개 업체가 참여해 남원농·특산물 홍보 전시관을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는 바이어상담 전문박람회로, 국내외 바이어 상담은 물론 대형유통매장 벤더 및 식품관련 유통업체와 납품·수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시식·시음을 통한 홍보행사를 가지는 등 남원 농(특)산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했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품목으로는 국내 대기업 납품은 물론 전 세계 10여개 나라에 만두를 수출하고 있는 (주)지엠에프를 비롯해, 추어탕,

음료, 전통차, 허브차, 참기름, 들기름, 한과, 전통 떡, 도토리묵 등이며, 이들 업체는 남원 홍보전시관에서 100여명의 유통 및 식품 관련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한 홍보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상해국제식품박람회에는 유자차, 전통차 등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농업회사법인 (유)미와미를 비롯해, 남원 특산물인 김부각과 만두, 음료, 우동 등을 출품해 세계 50여명의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큰 성과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강조 원예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남원의 농특산물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남원농산물 수출증대와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남원시, 내달 1일 '시민 원탁회의'

남원시는 6월 1일 시청강당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의제를 시민들이 함께 모여 시장발전 정책으로 도출하는 여덟번째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원탁회의는 지금까지의 원탁회의와 다르게 행정의 의제를 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직접 의제를 제안 받아 진행한다.

또한 의제 테이블을 구성도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논의된 내용을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번 원탁회의 의제는 ▲도시·농촌 상생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생활지원 회수 및 재활용품 처리 방안 ▲우리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남원의 문화유산, 생태관광 자원유지 전승 방안 ▲마을교육생태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남원이 여성친화도시로서 나아가 방향 ▲마을 내 청소년 자활 공간 확보 방안 ▲구도심 내 청년 공간 조성 등이 다. /남원=김기두 기자

# '농촌서바이벌체험장' 들어선다

### 순창 쌍치 피노마을 농촌관광 거점 육성 '순항 중'

순창군 쌍치 피노마을 주민들이 요즈음 기대에 부응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는 녹두장군 전봉준 피재지·압송로와 빨치산, 라희봉고지 등 지역 근현대사 자원을 테마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중인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조성이 순항중이기 때문이다.

피노마을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전투식량, 오리엔티어링 등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과 농촌관광거점센터, 농촌서바이벌체험장 조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올 9월이면 관련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정주여건이 취약한 현 농촌의 실정에서 다수의 젊은 인적자원과 지역 역사자원의 컨텐츠를 활용한 만큼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운영주체가 될 피노우리영 농조합법인(대표자 김삼곤) 소속 마을주민 다수가 농촌서바이벌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체험지도사 양성과정,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레저스포츠 안전교육과정 등을 이수

하며, 사업성공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농촌서바이벌체험장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위한 컨설팅에도 착수하며, 체험객의 주요 연령층이 될 전국 초·중·고교에 높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농촌서바이벌체험장이 마을사업으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전국 최초 사제로, 마을 주민이 자체 운영하는 첫 성공 사례로 남원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삼곤 대표는 "사업 추진단계부터 마을 주민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현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만족한다"며 마을 주민들과 행정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황숙주 순창군수는 "최근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에 따라 다양한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농촌관광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며, "피노마을이 새로운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농식품 가공 전문인력 집중 양성

### 임실군,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 실시

임실군이 지역 융복합사업을 주도해 나갈 농식품 가공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 1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성수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교육장에서 식품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제조, 가공에 대한 교육으로 농식품 가공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식품가공기능사반 교육을 실시했다.

총 15회로 진행된 식품가공기능사반 교육은 식품위생, 영양학, 식품가공공학 등의 이론교육과 품질검사, 과제류 가공, 식혜제조법제조 등의 실습교육으로,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이다.

식품가공기능사는 농·축·수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제조, 가공 업무를 담당할 기능 인력을 선발하는 자격제도다.

2018년까지는 연간 1회에 걸쳐 실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연 2회로 취득의 기회가 증가했다.

군 농산물가공센터는 식품가공기기, 교육장, 식품교육실습장 등을 갖춘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교육을 위한 시설로 2016년부터 매년 식품가공기능사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농식품 신기술 적용교육과 향토음식 개발교육 등을 통해 농업의 융복합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군은 7월 말부터 진행되는 식품가공기능사 2차시험 응시생들의 필요시 가공실습교육장을 개방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 가족관계등록신고 길라잡이 제작



순창군이 민원 신고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길라잡이'를 1000부를 제작·배부

에 나서며 군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군은 빠른 시일 내 제작을 마무리하고 각 읍면 사무소에 배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홍보물에 주요 4대 신고사항인 출생, 개명, 혼인·이혼, 사망 신고 등에 관한 절차상 중요사항을 정리해 담았다.

특히 출생신고 이후 각 가정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실질적 혜택에 관한 내용이 빠뜨리지 않고 담았다. 군민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썼다.

더욱이 군을 비롯해 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도 수록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군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알기 쉽게 담았다"면서 "군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지난 24일 대한노인회 노인 재능나눔사업 대상 어르신 19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실에서 치매파트너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를 의미하며,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치매 바로알기, 예방수칙,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파트너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육을 통해 치매 파트너 양성자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주민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 묻기, 교육에서 배운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치매 파트너가 되는 방법은 남원시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교육 외에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교육(50분)을 수료하면 치매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파트너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620-799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